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안으로 향해야 참 자기 맛볼 수 있어

### 물질·정신 둘 아닌 도리

**문** 예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모두 글자로만 이해하고 살았고,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성이 높았었습니다. 스님 말씀을 신문지상에서 접하고도 한참을 문자로만 읽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정신적 성장도 없이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걸 보고 내가 하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정말 적용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풀려나가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맛을 조금이나마 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나마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닌 것을 알고 높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답** 이렇게 해나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이치가 도리라고 생각하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해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말입니다.

요만한 것 하나도 다 지구에 권리가 있고 부처님한테 권리가 있고 부처님 법에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공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이게 일을 하나씩 바깥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력이 아니라면 바깥이고 안이고 간에 움직여줄 수가 있을까요? 생명력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자기 에너지 주장자요, 불성입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이름이죠.

모두들 산을 하나 하면 화두를 받아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화두예요. 그래서 과거 자기, 현재 자기라고 방편상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자기는 과거 자기를 찾아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을 보고 듣고 만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이라고 방편으로 습니다. 주인이면서 공했으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친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과거 자기가 현재 자기와 둘이 아닌 줄을 안다면 그때서는 세상 천지가 다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게 항상 응신으로 화해서 나투어 줍니다. 지장님도 나투어 주고, 관세음으로 나투어 주고, 약사로 나투어 주고, 지신으로 나투어 주고, 용신으로 나투어 주고, 항상 이렇게 할나할나 화해서 응해주니까 응신이죠.

그러니 모든 걸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놓고 가시면 진짜로 믿는 게 되고, 진짜로 자기 아닌 자기를 맞출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상관 없이, 생각해보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공했다는 도리를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정말 참 보배의 맛은 알지 못하고 가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생명력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로 인해서 다 통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요만한 티끌만큼의 의식도 없이 그대로 안으로 일입해서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한 발짝 떼어서 나가고 싶어

**문** 세상 어느 곳에도 섞여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잡게 된 후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그저 방황 속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인공뿐인 걸 무엇이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지 저는 자꾸만 지켜봅니다. 한 발짝 떼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끝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나의 이 몸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 몸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입력된 세포들의 의식이 하나하나 풀려나와서 이 몸이라는 껍데기가 그냥 달렁 달렁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다. 내가 한다. 내가 먹는다.' 하고 내가, 내가, 내가, 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말 이 도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학생들이 호랑이 탈바가지 쓰고선 놀죠? 사람이 뛰니까 바깥의 그 탈바가지는 덩달아 따라서 뛰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나를 본래 이끌어 가는 나의 참나, 나의 부(父)이자 영원한 스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다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다 보면 내 안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다면 하나하나 실험을 해나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체험을 해서 감응이 된다면 나의 근본과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 억겁을 거치는 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보이는 모습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 마음마저 사랄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참다운 사람의 행동을 하고 진정한 자비를 실행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힘들다 내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아서, 힘들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하며 이끌고 가는 나의 근본을 진실하게 발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 초하루·보름의 의미

**문** 예로부터 절에 가지 않던 분들도 초하루, 보름은 절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절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날은 '법계에서 총 집결하는 날'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일이 초하루, 보름이 되어 갈 수 있지만, 평일이면 가지 못하고 축원만 올리는 때도 있거든요. 일요일이라도 공부나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유로 못 갈 때는 '가지 못했다. 계를 들었다는 것에 걸려서, 다음 날 선원에 가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 자리에 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못 갈 때가 있지만, 절에서 하는 행사에는 꼭 가는 것이 좋은지,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서 올바른 공부로 정진코자 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절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와 직결이 되고 수레바퀴처럼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그 근본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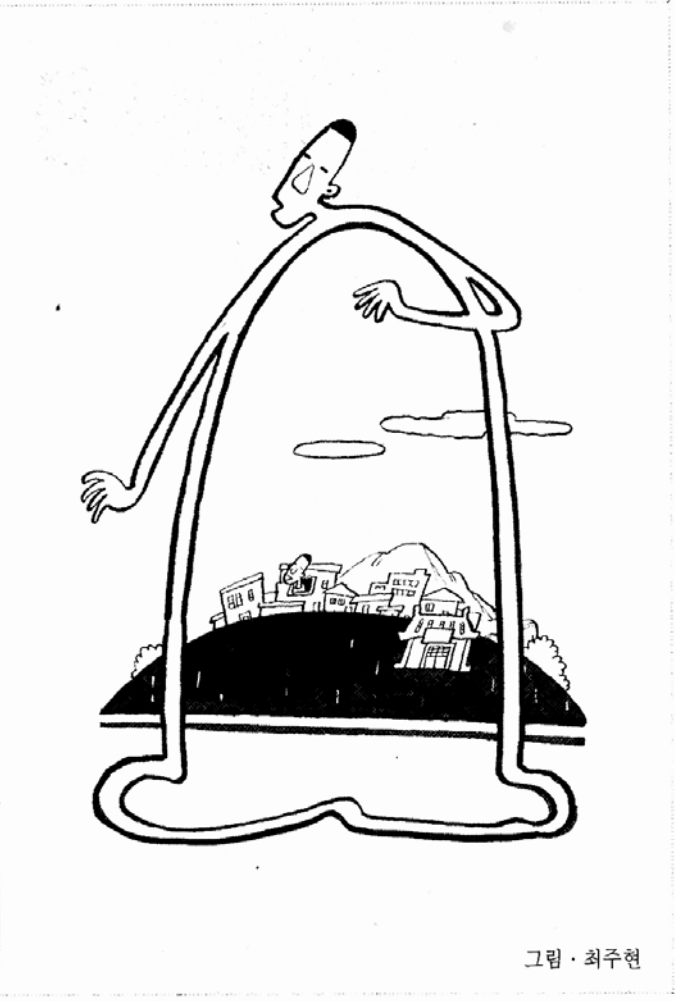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과거자기-현재자기 둘 아닌 줄 알면 세상천지가 다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세상 모두 둘 아니게 나투어 줍니다

가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가설이 돼 있구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 자기 마음으로 알면 통신이 되는 법이지, 남이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신처입니다. 우주의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한생각 내는 것에 의해서 전부 통신이 되고, 한마음으로 직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한데 합친 한마음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바 없이 지켜보는데, 남이 지켜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서 아는 그 자체가 그대로 더불어 한 마음에 즉각즉각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거지로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그저 주인공 뿌리만이 알 수 있고, 뿌리만이 다스릴 수 있고, 뿌리만이 해결할 수 있고, 번뇌를 녹일 수가 있고, 영계성, 세균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현실을 상응하면서 모든 것을 녹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성을 가지고 거지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 바

로 이 마음 씩씩함과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해서 이간질을 하키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나 정성을 안 둘이고 보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하면 자기가 거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부처님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내 몸도 여래의 집이요, 도량의 부처님 자리도 만종생과 한자리하는 소중한 곳이니, 이 집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테니까, 그저 초하루 보름에 내가 축원을 올리면서 정성을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부처님의 집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더불어 한마음의 법당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바로 극치적인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법당인 겁니다.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처 아니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이건 부처가 아니야. 이건 형상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도 또한 나의 몸이나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우주를 싸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서리고 있는 이상 어찌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마음이 열속해야 되고 항상, 내가 혼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다 못해 변소에 갔을 때도 열속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재빨리 가 법계 내뱉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좋아도 스무드하게 아주 언짢아도 스무드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인연 외면하지 말고 가는 인연 잡아들지 않으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나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가세요. 고정된 마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디 가담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활달하게 생각하고 뛰어 넘으세요, 매사에 다 그렇게요.

### 21일 기도중 하루 걸렸는데...

**문** 어느 스님께서 쓰신 기도법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일을 기한으로 삼고, 밤마다 자기 전에 한 자루를 피워 놓고 광명정언을 외우면서 영가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 한 다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주시라고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 8일 동안은 꽤 먹지 않고 고정된 마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디 가담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활달하게 생각하고 뛰어 넘으세요, 매사에 다 그렇게요.

**답**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바로 도(道)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은 부처님 법이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주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시간 맞춰 기도를 해야 만이 신상이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기도 할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기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영주가 될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주를 돌렸다 왔다, 돌렸다 왔다 한다던 것은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발 밟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영주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진리인 까닭에 그대로 도이며,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따로 놓고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부터 알라고요. 내가 태초요. 내가 바로 부처요. 내가 있으니 상대성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나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안 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영원한 근본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내 한생각에 일체만법이 들고 나는 도리를 상세히 아실 겁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여여해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벽을 치면 못장이 울릴 수 있도록, 스스로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

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공로에다가 놓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고,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고,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공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처를 따로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바로 기도처이고 내 생각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한 근본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 아닌 참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주인공은 어디에 있나

**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주인공이 너의 뿌리이니 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저에게 자꾸 믿으라고만 하시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주인공을 믿어야 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하심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요즘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태어났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결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수 없이 살아 나온 너의 과거 생명력이 한데 합쳐져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과거 너의 생명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야.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인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네 모습은 반드시 과거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산다. 내가 공부한다. 내가 먹는다.' 하고 생각하는 거 하면, 자신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한 부처님의 몸과 둘이 아니데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너를 이끌어 온 너의 진짜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나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기에 어머니도 통이나 같아. 그래서 너의 근본의 능력이 본래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를 믿지 않는 거와 같은 거지.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와 같은 거. 저 나무들이 뿌리가 잘라진다면,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그거와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이야. 수 백년이 가도 그런 절대적이야. 그래서 근본을 불성이라고 하고 자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맡겨 놓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거란다.

너도 느끼겠지만, 특히 요즘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안 좋은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항상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쳐야만 자기가 급할 때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어. 내 안의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안목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함겨워하는 사람들

##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인 288쪽  
값 6,000원  
이시자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